

종교개혁과 법

- 루터의 종교개혁의 법적 유산을 중심으로 -

김정우 (송실대학교 겸임교수)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은 신앙이나 신학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과정과 결과에는 중요한 법적 논의들이 존재한다. 종교개혁이 서구법의 발전에 끼친 영향이라는 선행 연구들이 이미 존재하지만, 필자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과정 및 결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 함의를 언급하고자 한다.

1. 종교개혁의 법적인 원인과 결과 : 성직자의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종교개혁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내용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 사건이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종교개혁 전야를 살펴보면, 성직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세속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가 국가 권력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만스럽게 여

겨지는 상황들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직자들은 그들의 직업이 지닌 성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세속 권력의 사법 관할권에서 면제되었다. 성직자 계급의 가장 중요한 법적 특권 가운데 하나는 교회법에 따라 교회 법정에서만 재판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직자는 국가의 법이 아니라 교회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오래된 생각은 교회가 성직자의 범죄들을 세속적인 기준과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교회법은 철저하게 성직자 우위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성직자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교회에 재판관할권이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가 세속법의 처벌로부터 면제됨으로 법적 처벌에 있어서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영적 권위를 세속 권위보다 우위에 두는 교회법의 태도에 대해 루터는 '법적 처벌에 있어서의 평등 사상'을 주장하였다.

로마의 교황주의자들은 세속 권위가 그들을 억누를 때, 세속 권위는 그들을 제압할 어떤 권리도 없으며 오히려 성직자의 권위가 세속 권위 위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들은 교황, 주교들, 사제들, 수도사들을 영적 계층이라고 부르고 영주들, 군주들, 직공들, 농부들을 세속적 계층이라고 불렀다. 교회법은 성직자들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심을 두었지만, 평신도는 그들만큼 영적이거나 선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또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해 왔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단지 인간이 만든 교회법의 조작으로부터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루터는 세상 정부가 성직자를 제압할 수 없으며, 그들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교회법적 주장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세상 정부는 악한 자를 처벌하고 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그가 벌을 면할 수 없으며
죄가 있는 곳에서
처벌을 피할 길은 없다고
루터는 주장하였다.

'칼과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상 권력은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이므로, 해당자가 교황이든 주교들이든 사제들, 수도사, 수녀들, 그 밖의 누구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황이든 주교든 사제들이든 고려하지 말고 벌을 받아 마땅하거나 벌을 부과할 때에는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그가 벌을 면할 수 없으며 죄가 있는 곳에서 처벌을 피할 길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루터의 이러한 생각들에 동의하고 루터주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변화들이 뒤따랐다. 성직자들은 세속법과 관련해서 면제와 특권들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 있어서 세속 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하게 되었다. 새롭고 강력한 징계 법안들은 면책특권이란 미명 하에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들의 평화와 이익, 복지를 저해하는 성직자의 악행들을 금지하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태도를 바꾸든지 하라!”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여,
국가와 교회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개신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회복하라!

였다. 성직자가 범한 범죄도 세속 법원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고, 1524년 레겐스부르크(Regensburg)의 법령은 어떤 성직자든 도시에 의해 유죄가 입증된 자는 세속 법원의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기는 루터의 신학 사상을 '법 적용 및 법적 처벌에 있어서의 평등' 영역에 적용한 중요한 법적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교회의 불합리한 권력에 대한 루터의 저항 :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의 힘

종교개혁은 단순히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교회의 권력과 관계된 법적 사건이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루터의 항의는 그를 법정에서 세게 했는데 이 재판에서 루터의 대응이 갖는 법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루터는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항변을 했다.

“저는 성서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납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오류를 범했고, 자체로 모순되는 말을 한 교황이나 공의회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인용한 성서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한 철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루터에 대한 종교재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재판의 성격과 절차상의 하자의 문제이고, 둘째는 재판에서 루터의 항변이 갖는 근대적인 헌법적 함의와 관련해서이다.

루터에 대한 재판에서 교회가 사용한 방법은 교황의 교리 결정권에 대한 교회법적 규정에 기인한 것이었다. 루터는 논적들의 글들을 통해 그리고 교회법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통해 당시 교권에 대한 교황청의 이해가 얼마나 교회법적 전통에 얽매어 있는지 알게 되었다. 루터에게 교회법은 왜곡된 교회 권력의 표현이었고, 루터에 대한 재판은 결함으로 얼룩진 것이었다. 공정한 판사에 의한 심문도 없었고, 고소한 오류들도 성서를 근거로 그 진위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사법부를 배격하고자 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으로 언급되는 그의 항변은 루터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실정법에 불복종한 사건이었다. 루터는 '성서에 사로잡힌 양심'에 근거해 실정법에 불복종했다. 여기서 성서에 사

로잡힌 양심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세를 통하여 타율(heteronomy)은 종교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에 구속되는 신율(theonomy)로 전환되었다. 신율은 자기 자신의 가장 심오한 법이면서 동시에 인간 자신이 거하는 신적 터전에 뿌리 내리고 있다. 신율에 따르면, 삶의 법이 인간 자신의 법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그것은 인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는 교권주의적인 타율이나 세속적인 자율(autonomy)과는 구분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율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서도 명백히 타율적인 성격을 지닌 의미를 만들어 냈다. 루터의 항변은 중세적 타율에 종말을 고하는 신호였다고 볼 수 있고, 근대적인 의미에서 양심의 자유의 발전에 초석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에서 가장 먼저 규정된 세속적 자유는 양심의 자유였고, 이것은 처음에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었다.

3. 현대적 적용

종교개혁과 법이라는 주제는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필자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유산과 과제라는 관점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필요한 통찰과 적용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회자의 성범죄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한국 교회가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법적인 유산에 무지하거나 혹은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아돌프 폰 하르낙(Adolf von Harnack)이라는 독일의

교회사학자는 “개신교는 개신교의 근본 원리를 기억해야만 한다. 개신교에게 주어진 임무는 진리가 아닌 것에는 귀를 닫는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개신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현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에 적절한 경고라고 생각된다.

알렉산더는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군사가 겁쟁이로 알려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태도를 바꾸든지 하라.”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교회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개신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회복해야 한다.

교계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급하게 요구되는 일은 종교개혁이 남긴 법적인 유산과 정신을 지금 이 시대에 되살려 내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 그리고 개신교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회복하는 일이다.



글 | 김정우

승실대학교에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교회법”이라는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백석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종교개혁의 신학적, 법적 유산들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강의, 목회를 병행하고 있다.